

“아동문학의 길 한마음 40명 동인들과 걸어요”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 회원들이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의동 비움박물관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다짐했다.

광주서 2005년 결성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

4개 동인 활동...신춘문예·각종 문학상 다수 배출

최근 시무식서 작가 강연·시상식 갖고 창작 독려

문학동인은 문인들이 문학적 지향을 모토로 창작 활동과 지평을 넓혀가는 모임이다. 동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동인회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실 외에도 문학의 매개로 인근 장르와의 소통, 문인간의 교류를 확장한다는 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5년에 결성돼 2018년 현재까지 40여명의 동인들이 신춘문예와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인이 있어 화제다.

광주에서 아동문학을 토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이하 문예창작연구소). 지난 2005년 결성된 문예창작연구소는 동화작가 이성자 씨가 주축이 돼 함께 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수련의 장이다. 현재 동인 사무실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소재하며 창작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문예창작연구소 동인들이 2018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창작활동 독려와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펼쳤다. 옛 생활용품과 민속품들을 수집해 만든 '비움박물관'(광주시 동구 대의동·관장 이영화)에서 이뤄진 모임에는 전·현 회원 34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7년 첫 시무식을 시작한지 만 1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행사는 준비기간도 시력으로 저녁을 들며 회원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과거로 떠나는 여행'인 박물관 관람, 팔뚝 나눔, 특별상과 공로상 시상, 우리들의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동인을 이끌고 있는 이성자 아동문학가 겸 소장

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걸음마를 시작한 뒤로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갈림길과 지름길 그리고 꼬부랑길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 위를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자 아동문학가는 지난 1994년 계몽사아동문학상에 동시 '빈 가지마다'와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오동잎을 따서'가 당선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아동문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현재 모교인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후배들에게 아동문학을 가르치며 자신도 배우고 있다.

이 작가가 아동문학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대 이후 갑작스러운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경험 때문이었다. 얼마 후 깨어나자 담당 의사로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는 조언을 들은 게 계기가 됐다.

그렇게 아동문학의 길로 들어선 후, 이 작가는 함께 창작을 공부하는 동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2005년 지금의 사무실에 동인을 꾸리고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창작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하나 둘씩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문예창작연구소 안에는 모두 네 개의 개별 동인이 활동하고 있다. 솔샘동인(월요일 오후 7시), 솔빛동인(화요일 오후 7시), 솔향모임(수요일 오전 10시), 솔숲동인(수요일 오후 7시) 등 모두 4개의 모임은 “따로 또 같이” 하모니를 이루며 창작에 매

진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광주일보 신춘문예(2011) 출신 안수자 작가가 '동화작가가 되는 네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안 작가는 단편동화 '뿌사리'로 안데르센문학상, 장편동화집 '우주나무 정거장'으로 MBC창작동화대상을 수상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어 2016년 아름다운 글문학상을 수상한 방승희 작가는 '나에게 문학이란' 주제로 회원들에게 창작의 과정을 소개했다.

회원들은 문예창작연구소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여는 곳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모두가 동인이기에 동인 내 직책을 막론하고 서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윤미경 동화작가는 “더러는 혹독한 비평을 들을 때도 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며 “서로를 '도반(道伴)'으로 부르는 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함께 '별도를 닦는 빛'으로 여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곳 동인을 매개로 문단에 나온 이들도 적지 않다. 김명희 회원은 강원일보 신춘문예(동시)로, 김점선 회원 부산일보 신춘문예(동화), 백정에·윤미경·양정숙 회원 무등일보 신춘문예(동화), 전북일보 신춘문예(동화)에 당선돼 창작의 길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40여명의 동인들이 신춘문예와 문학상을 수상하며 아동문학을 매개로 창작의 저변을 확장해가고 있다. 물론 문학의 목적이 등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함께 공부한 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만의 길을 오토이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창작교실의 카페티기로 활동하는 박상희 작가에게 특별상이, 창작교실의 행사와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안수자 작가와 다양한 퍼포먼스로 창작교실을 알리는 데 애쓴 윤미경 작가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음악협회장에 김성훈 부회장 선출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의 제 11차 정기총회에서 제 11대 지회장에 김성훈(호 남신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제10대 부회장·사진)씨가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까지 3년간이다.

김성훈회장은 지난 3일 오후 3시 광주 KT정보센터에서 열린 제11차 정기총회에서 광주음악협회 회원 690명과 관심있는 예술인 10여명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에서 당선됐다.

1차 투표에는 658명이 참여했으며 2차 투표(김성훈 226표, 김기준 200표 득표)를 통해 26표차로 김기준 후보를 앞섰다.



김성훈 회장은 “광주를 공연문화 중심 음악도시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년간의 광주음악협회의 경험을 발판삼아 광주음악협회를 '공연을 통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으며, 음악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게끔 모든 것을 헌신하며 봉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시산맥작품상’에 장흥 출신 이재연 시인

제8회 시산맥작품상에 장흥 출신 이재연(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허공에 검은 선을 그으며’.

이재연 시인은 2005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12년 제1회 오장환 시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슬슬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가 있으며 현재 ‘운동주서시문학상’ 호남지역 홍보위원을 맡고 있다.

시산맥작품상(상금 300만원)은 지난 한 해에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는 기 추천된 후보 작품 중 17편이 심사 대상이었다.

김주헌, 이화은, 김영찬 시인은 심사평에서 “서정을 기조로 안정되게 흐르는 리드미컬한 문체도 가치 일품이다. 이 시가 매력적인 것은 일체의 고리타분한 비유를 배제하고 시종 일관



된 주제 하나로 공중을 건너는 세의 일상을 인간사에 편입, 안정된 알레고리를 차분히 확보한 것이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시상식은 5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7 ‘시어 눈을 감아라’ 최종 수상자인 정유희 시인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렸다. 시어 눈을 감아라라는 일 년간 토너먼트로 열린 시경연대회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기자 skypark@



신선민 대금연주회 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신선민 초청 대금연주회 ‘노적성해(瀟瀟成海)’ 공연이 오는 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선민은 한국전통음악이 가진 단아한 선율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고음 음색을 완성도 높은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일반관객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음악으로 다양한 음악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연주 무대는 대금정악 ‘상령산풍이’, 생황연주 ‘수룡음’, 대금독주 ‘청성곡’, 대금산조 ‘서용석류’를 들려준다.

신선민은 광주예고와 전남대학교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이다. 2014년 빛고을전국국악경대회 일반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다. 조창훈, 채광자, 이철주, 신경환, 김효영 등을 사사했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KCPBA 2016
2011
2011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